

우오미다이 관망대

야시마 호쿠레이에는 네 곳의 ‘우오미다이’(물고기를 보는 망대라는 뜻)가 있어서 각각 다른 방향에서 세토 내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오미다이는 고대 야시마의 요새에서 배의 접근을 확인하기 위한 망대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 지역 어부들이 우오미다이에 서서 큰 물결, 물고기의 모습이나 새 울음소리 등 물고기의 기미를 잘 살펴 좋은 어장이 어디에 있는지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센젠도 더 가까이 남동쪽에 있는 우오미다이는 야시마완 만, 고켄잔 산, 무레 지구에 면해 있으며 왼편으로는 세토 내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오미다이 아래에는 일찍이 어촌이 있었다고 보이는 장소에 작은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1185년의 유명한 야시마 전투 때에 다이라 가문이 배를 숨겼다고 하는 만(灣)도 바라다볼 수 있습니다.